

‘지역인재’ 정부 권고 못미치는 비수도권 8개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추세 속 지역별 편차 커 비수도권 26개교 중 8개교 60% 이하 모집 김문수 “취지에서 일탈한 곳 상응 조치해야”

비수도권 의대 26개교 중 8개교가 지역인재전형 정부 권고 사항인 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

·구례갑)에게 제출한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간 편차가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입시에서 50.0%이던 지역인재전형은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 및 내년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각각 59.7%와 61.8%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광주 소재 국립대(전남대 의대)로 79.1%였다. 반면, 가장 낮은 학교는 강원 소재 사립대(한림대 의대)로 20.2%였다. 편차가 58.9%p에 달한다.

지역인재전형 정부 권고 6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전국의 의대 26개교 가운데 8개교(30.8%)였다. 강원 4개교, 부산 2개교, 대전과 제주 각각 1개교다. 지역으로 강화 취지에서 비수도권 정원을 증원했는데 30.8%의 비수도권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이 정부 권고보다 적은 셈이다.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나오는 이유다. 전반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있지만 부산 소재 사립대(동아대)는 2024학년도 86.3%에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모두 68.6%로 축소했다. 강원 소재 사립대(한림대) 또한 같은 기간 22.8%, 21.2%, 20.2%로 매년 줄이고 있다. 더욱이 부산 소재 사립대(동아대)와 강원 소재 사립대(한림대)는 각각 올해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글로벌대학에 지정됐다. 지역과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글로벌대학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줄이거나 가장 적다는 것은 문제란 지적이다. 김문수 의원은 “지역으로 강화 취지

로 비수도권 의대들을 정원 늘렸는데 지역인재전형을 줄인 곳도 있고 정부 권고보다 적은 곳도 많다. 특히 지역과 상생하라는 취지의 글로벌대학 한 곳은 지역인재전형이 가장 적다”며 “취지에서 일탈한 곳은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 20% 이상이 의무사항이다. 정부는 6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방송4법 등 6개 법안 금주 재표결...또 폐기 수순

與, 26일 본회의 부결 방침 野, 재발의 가능성도 커 ‘김여사특검법’ 신경전 속 무쟁점 민생법안 협치 주목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한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쟁점 법안인 ‘김여사특검법’도 재표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여당 내부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연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며 다수 의석을 활용해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한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돼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입법 드라이브에 집중했다. 26일 본회의의 재표결에서 이들 법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이를 다시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 법안 발의→야당 단독 의결→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재발의’라는 수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여야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둔 상태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방송 4법’ 등과는 달리 ‘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최근 김여사 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잇단 외부 활동에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여사-채상병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 추천 절차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입법이라는 인

식이 퍼져 있어 결국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처럼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민생 법안에 선 협치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일단 26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재표결과 별개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남해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민주, ‘검수완박 시즌2’ 본격화

혁신당과 함께 검찰 권력 축소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형사 사건 4건 중 첫 사건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이 개정안은 검사 등의 법 외폭 행위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10월2일로 예정된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도 검찰 압박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민주당·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다. 민주당은 강백신·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열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기자

10·16 재보선, 24-28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시·군·구 사이트·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22일 “10월16일 실시되는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서울시)과 기초단체장 4곳(영광군·곡성군,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

어 움직이기 힘든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관 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서 사는 이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의 경우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시·군·구 사이트나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김진수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K-06
중상급자용



피닉스 K-03
초보 중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